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창설**

군용 및 민간항공기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안전관리단이 6월 1일 창설됐다.

항공안전관리단은 공군본부 직속기관으로 조종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항공기 사고조사 및 조사요원 양성, 정비 등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총망라해 활동을 벌이게 된다.

관리단은 현재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22명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9년까지 61명, 2002년까지는 2백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군본부 직속기관인 항공안전관리단은 △항공기사고 조사 및 조사요원양성 △조종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정비 △유류 무기장착 폭발물관리등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군용 및 민간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시로 편성된 현지 공군부대요원들이 현장사고조사를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상설기구인 항공안전관리단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공군은 오는 2000년도부터 2백7억 원을 들여 경남 진주에 6만평 규모의 관리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미 안보협 분과회의,
항공산업기술 한국이전**

국방부는 6월 7일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회의의(SCM) 분과위원회회의를 갖고 K1전차 등 미국이 제공한 기술로 생산한 한국방산물자의 제삼국 수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국이 지속적인 노력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미양국은 이날 연례안보협회의의 4개 분과위중 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군수협력위(LCC) 등 3개 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또 방산기술 이전문제와 관련, 한국이 그동안 이전을 요구해온 항공산업기술에 대해 미국측이 긍정검토기로 했으며 양국간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연구개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차세대전투기사업(KFP)에 따른 F16기장착 전자전장비(ASPJ)를 미국방부의 해외구매사업(FMS)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공군, F-5A/B
비행재개 결정**

공군은 최근 잠정적으로 비행중단 조치를 취한 고등훈련기 F-5A/B기에 대해 비행을 재개토록 결정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노후기종인 F-5A/B의 항공기 수명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를 미공군기술협력기구(TCG)에 송부, 항공기 상태를 진단한 결과 항공기 수명이 다한 것으로 잠정 통보를 받아 지난 4월 일단 비행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5월 10일 우리측 전문가와 TCG 등 미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기술협력회의를 가진 결과, 미측의 계산착오로 항공기 수명판단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 비행재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군은 지난 4월 25일 60년대 중반부터 70년

대 중반에 걸쳐 도입된 F-5A/B 기 20여대의 비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한편 최종 확인된 F-A/B의 수명은 A기종이 7천6백여시간, B기종이 1만1천8백여시간으로 우리 공군은 지금까지 A기종을 5천5백여시간, B기종을 9천여시간가량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참모총장 유럽 4개국 순방

김홍래 공군참모총장이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4개국 공식방문을 위해 15일간의 일정으로 5월 21일 출국했다.

김총장은 순방기간중 방문국 군고위인사와 군사협력 및 군사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각국 최신 항공무기체계 운영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김총장의 러시아 방문은 한국군 장성으로는 첫 러시아 공식초청 방문으로 그라초프 국방장관등 군수뇌부와 연쇄접촉을 갖고 MIG-29, SU-35 및 대공미사일인 SA-10 생산공장등을 방문했다.

한·일 군용기 사고방지 서한 교환

국방부는 6월 5일 우리나라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상대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내를 비행하게 될 경우 상호 비행계획을 사전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일 군용기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에 서명,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방공식별 구역이란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식별, 위치확정 및 통제를 요하는 공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공군은 사전통보없이 이 구역을 넘어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요격기를 긴급 발진 해왔다.

한·일 양국은 특히 이 서한에서 대마도주변 등 양국간의 군용기 활동이 겹치는 지역에서 우발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큰 만큼 이 지역을 비행하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비행계획의 사전통보 등 안전절차를 준수토록 했다.

대만, 미군용기부품 구입 요청... 1억9천만달러상당

미국방부는 한 대만정부기관이 1억9천2백만달러 상당의 군용기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6월 9일 의회에 통보했다.

미국방부는 이등위 대만총통의 비공식 미국방문에 즈음한 이날 발표에서 주미대북 경제문화대표처에서 F-5전투기, F-104전투기, T-38훈련기, C-130수송기, C-119수송기, C-47수송기 등의 부품과 항공레이더 구입을 위한 병참보급지원협력협정(CLSSA)의 체결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과거 중국정부를 대만 대신 중국정부로 인정하면서 대만과는 주미대북경제 문화처를 통해 군사판매와 문화교류를 지속할 것에 합의했었으며 대만이 미국군수회사들과 대형 군사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미국방부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